

광양시 문화도시 지정 전방위 총력전

문체부 연말 3차 선정 앞두고...지정엔 5년간 국비 100억 지원 기본계획 수립·조례 정비·추진협체 확대 등 신청 준비 박차

광양시가 문화도시 지정에 올인하고 있다. '문화교역도시 광양'으로의 도약을 향한 행보다.

23일 광양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문화도시 30곳 내외를 지정할 계획이다.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앞으로 5년간 최대 10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제1차 문화도시로 경기 부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제주 서귀포시, 부산 영도구 등 7곳을 지정했다. 이어 제2차 문화도시 예비지역으로 인천 부평구, 경기 오산시, 강원 강릉시·춘천시, 충남 공주시, 전북 완주군, 경북 성주군, 경남 통영시, 제주 제주시 등 9곳과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순천시가 선정됐다. 이들 10개 도시는 문화도시 지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 최종 지정된다.

제3차 문화도시시는 올해 말 예비지역을 선정해 1년간 예비사업을 거친 뒤 내년 말 최종 지정된다.

광양시는 제3차 문화도시 지정에 도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 문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 '시민의 손으로 함께 키우는 문화교역도시 광양'이라는 비전을 도출했다. 문화영향평가와 관련 조례 제정 등을 상반기 문화도시 예비도시 신청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광양시문화도시사업단(이하 사업단)을 구성, 광양읍권을

문화기움지구로 정해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문화특화지역을 광양읍권에서 광양시 전역으로 확장하고, 보다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과 참여를 위해 문화도시조성사업 추진협의체 위원을 기존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했다.

특히 시민문화 인력 양성과 시민문화 기획 지원, 문화적 장소 재생, 도시 자원 및 가치 발굴, 전문적 문화경영체계 구축 등 문화인프라 형성을 위한 전방위 노력을 펼치고 있다.

다음 달부터는 문화도시 랩(Lab)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문화도시테이블, (가칭)광양예술창고 시민참여 프로그램, 문화공간 문화살롱 등 새로운 사업들도 추진한다.

지역협력 체계와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재생과·관광과 등 부서간 연계협력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제철 및 항만의 연계 시범 사업을 계획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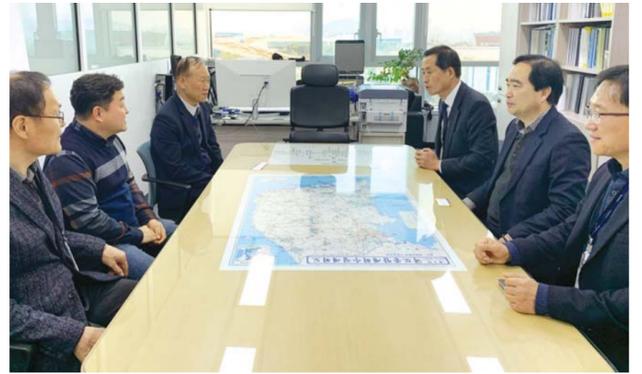
있다. 문화도시사업단과 사회적기업 등 광양시 중간 지원조직들도 교류·협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문화기획 인력양성, 시민지원 프로그램, 문화자원 아카이브 및 콘텐츠 개발, 생활문화센터 및 4개 문화공간 운영, (가칭)광양예술창고 관련 시민프로그램, 아트유선 사업도 변함없이 추진한다.

사업단은 사업 정보와 추진사항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www.gyculture.or.kr)를 개통하고, 다양한 SNS 홍보채널도 운영하고 있다. 오픈 채팅방 개설·카드뉴스 배포 등 시민 맞춤형 소통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문화도시 조성은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문화창업과 관광산업으로 확산돼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나아가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김명원 광양부시장이 최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광양시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광양부시장, 해수·국토부 찾아 국비 건의

해양산업관 등 8건 반영 요청

김명원 광양부시장이 지난 21일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해 광양항만해양산업관 건립 등 8건의 지역 현안사업을 설명했다.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첫 행보다.

김 부시장은 이날 행정안전부를 찾아 국립 자원봉사연수원 건립 800억원 등 2건을 건의했다. 또 해양수산부를 방문

해 광양항만해양산업관 건립(2000억원)과 광양마린베이 조성사업(1000억원) 등 4건을, 국토교통부에서는 남도2대교 건설(430억원)과 섬진강북항형 휴게소 조성(180억원) 등 2건의 사업을 설명했다. 김 부시장은 이들 사업 총 8건,

국비 예산 6552억 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광양시는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지난해 9월 제1차 국고 건의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2차 보고회, 올해 1월 최종 보고회 등 3차례 보고회를 열어 국고 건의사업을 발굴했다.

또, 기획재정부 간부공무원 초청해 정부 예산 편성 흐름을 파악하는 등 전 직원이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김 부시장은 "지난해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라는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전남도와 중앙부처 등을 수시로 방문해 광양지역 주요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순례, 세상을 걷다' 저자 오동호 前 원장 초청 광양경제청 25일 특강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25일 '순례, 세상을 걷다'의 저자 오동호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을 초청해 특강을 실시한다.

오 전 원장은 33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인생 제2막을 준비하기 위해 82일간 일정으로 2000km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났다. 이날 강연은 순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산티아고 순례길에 들려주는 리더의 길'이 주제다.

오 전 원장은 산티아고 순례길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동력과 우리나라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 스페인 바스크지역의 빌바오(Bilbao)가 중화학 도시에서 유럽 최고의 문화도시로 재탄생 지역발전 성공사례를 소개한다. 아울러 상실과 우울의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도전과 열정, 새로운 출발의 설렘을 전달한다.

조이환 광양만권경제청 행정지원팀장은 "오 전 원장의 특강은 직원들에게 지역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되는 투자유치 활동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모멘트가 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세상을 열어보자는 메시지를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시는 유당공원 내 친일인사 공적비 옆에 단죄문을 설치해 방문객들에 친일행적을 알리기로 했다. 유당공원 친일인사 공적비.

유당공원 친일인사 비석 이전 대신 단죄문 설치

이근호·조예석 공적비 옆에 4월까지 설치 친일행적 알려

광양시가 유당공원 내 친일 인사의 비석 옆에 단죄문을 설치한다.

23일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문화유산보호관리위원회를 열어 역사오적 이근호·조예석의 공적비에 대한 정비 방안을 심의했다.

광양시는 지난해 9월 시정조정위원회 자문회의와 시의회 의원간담회를 열어 유당공원 내 친일인사 비석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친일 행위를 단죄하는 의미로 문제의 비석을 옮기는 의견도 나왔지만, 천연기념물인 이팝나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비석 옆에 단죄문을 설치하기로 했다.

광양시는 오는 4월까지 단죄문을 설치해 유당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친일

행적을 알리기로 했다. 이근호(1861~1923)는 1902년 2월부터 제5대 전남도 관찰사 겸 전남도 재판소 판사를 지냈다. 경술국치 이후 일본의 한국 강제 병합에 앞장선 공로가 인정되어 일본 정부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았다.

조예석(1861~?)은 1902~1904년 광양군수를 지냈고, 경술국치 이후 일본의 강제병합에 관계한 조선 관리들에게 일본 정부가 수여한 한일병합기념장을 받았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광양제철소, 결혼이민자 통·번역가 52명 배출 2년 교육과정 지원...7명 취업·43명 한국어 3급 시험 합격

포스코 광양제철소(소장 이시우)는 광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2년에 걸쳐 지원한 통·번역 전문 인력 양성과정을 마치고, 총 52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광양제철소는 지역 결혼이민 여성들의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과 일자리 연계를 위해 통·번역 교육과정을 기획했으며, 포스코 1% 나눔재단에서 교육비 전액을 지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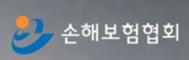
지난 2018년 2월 시작해 2년간의 교육 끝에 최근 52명이 수료했다.

이 중 7명이 취업해 지역 다문화가정 상담 때 필요한 통역 업무와 자국의 문화·언어를 알려주는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 43명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 응시해 중·고급 수준인 3급 이상의 평가등급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에는 한국생활 정착의 핵심

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어능력 향상 프로그램과 함께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부모의 역할 등 수료 이후 결혼이민여성들의 자립과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했다.

손경화 광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2년 교육과정을 이수하느라 고생한 교육생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향상된 한국어 실력으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제철소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광양제철소 재능봉사단인 프렌즈봉사단과 광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다문화가정 합동 결혼식 개최, 한국 전통문화 체험 기회 제공, 다문화가정 어울림 한마당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고의사고! 허위입원! 허위청구! 과잉진료! 확대수리

한 사람의 보험범죄 전국민의 경제부담

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늘어나는 국민손실,
보험사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보험사기, 반드시 적발됩니다.

MERITZ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Heungkuk Fire & Marine Insurance

SAMSUNG 삼성화재

H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KOREAN KOREAN

SGI 서울보증

AXA AXA

AIG AIG

The K 손해보험

NH손해보험